

■ 일본기업, 생산거점 일본 국내회귀 움직임

- 엔고 극복, 생산코스트 절감 등을 목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오던 일본기업의 해외진출(생산거점 해외이전)은 플라자합의 년도인 '85년에 절정을 이루었으나 근년 들어 일본 국내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.
- 경제산업성이 '03년 중 실시한 “해외현지법인 조사”에 의하면 일본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은 3,611개사로 이중 신규설립은 '85년의 360개사를 정점으로 감소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.
- 아울러 '03년 중 국내 공장취득건수(1천㎡ 이상의 공장용지 취득 기업 대상 조사)는 1천건을 초과(1,020건)하여 3년만에 증가세를 보였으며, 취득면적은 전년대비 40% 증가한 약 12백㎡로 나타났음.
- 한편 '03년 9월에 닛케이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의 해외 설비투자('03년도 수정계획 기준, '03.4.1~'04.3.31)는 전년도대비 7%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상기 결과와 더불어 국내가 생산거점으로서 재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음.
- 최근 디지털 가전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超薄형 TV, 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가전부문의 적극적인 설비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샤프, 캐논 등 완성품 메이커뿐만 아니라 연관부품 메이커도 국내생산 강화에 착수해오고 있음.
- 다만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국내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기업의 해외이전 추세가 완전히 수그러든 것은 아님. 일본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등 해외로 생산 이전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오고 있으나 고부가가치제품은 국내에 온존하는 등 생산제품에 따라 해외와의 분할공존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임.
- 특히 고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일본기업의 전통적인 강점인 “제품제조기술”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·판매하는 것이 다양한 메리트를 가져다 준다는 인식이 근년의 생산거점 국내회귀 현상을 유발하고 있음.
- 이 같은 생산거점 일본 국내회귀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샤프임. 샤프는 액정 TV의 수요 확대를 예상, 미에현 가메야마시(三重縣 龜山市)에 최근 3년간 15백억엔을 투자한외에 닛토전공, 돗판인쇄 등 액정관련 약 50여개사가 동 지역에 공장을 집결함으로써 일본의 모노즈쿠리(モノづくり, 제품제조) 부활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오고 있음.
- 샤프의 마치다 사장이 즐겨 쓰는 말에 “極.製造業”이 있음. 즉 제품제조를 극한으로 추구한다는 의미로서 이를 위해 개발은 일본, 제조는 해외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개발도 제조도 국내에서 직접 행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오고 있음. 즉 제조현장이 가까이 있는 것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음.

- 앞으로 일본 국내 공장이 담당해야 할 역할로서 “고도의 기능과 생산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제조”를 든 경영자가 많고, 특히 납기의 신속화를 도모할 필요성에서 국내생산거점의 중요성은 퇴색하지 않을 것(일본능률협회 히라노 연구관리부장)이라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생산거점 일본 국내 회귀현상이 일과성으로 끝날 것으로는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음.

< 주요 기업의 생산거점 일본 국내회귀 관련 추이 >

기업명	국내 생산 회귀 배경 및 내용
샤프	-최근 2년간 국내에 5개 공장 신증설, 생산 국내회귀의 상징적인 기업으로 대두 -액정과 같은 지속적인 기술진보가 기대되는 것은 일본에서 개발.생산을 한다는 입장 -미에현 가메야마 소재 샤프사 공장 주변에는 돛판인쇄(컬러필터), 넷토전공(편광필름) 등이 공장을 연이어 신설 .소재계를 포함, 액정 TV의 기간부품 제조의 일대거점화
코마츠	-고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생산중 -개발부문과 제조현장을 분리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인식 -주요부품의 개발.제조는 팀워크를 기초로 한 “일본식 모노주쿠리(제품제조)기술”이 필요
온워드카지야마	-신기술혁신이 국내 생산을 가능케한 케이스로 無縫製자동편직기 시스템 개발(시마세이키제작소)에 따라 국내회귀 추진 -단기간에 추가 생산가능 여부가 매출을 좌우, 국내의 생산 코스트高만 극복 가능하면 판매와 생산현장이 가까운 쪽이 유리한 것은 당연
마츠시타전공	-아이치현 세토공장에 주택분전반 등에 사용되는 소형 분기 브레이커 일관생산라인을 신설, 중국 광동성의 협력공장에서도 해오던 최종조립공정을 이관(중국내 생산에 비해 인력을 1/5 수준으로 절감) -Full automation 생산 전환으로 효율 향상, 토탈코스트절감에 의한 판매.수익성 향상이 주된 목적 .생산 국내전환으로 수송비.관세 및 설계비 부담 경감(제품당 20%의 코스트 절감)

(문의처 : 도료무역관 신태철 stc69@kotra.or.kr)